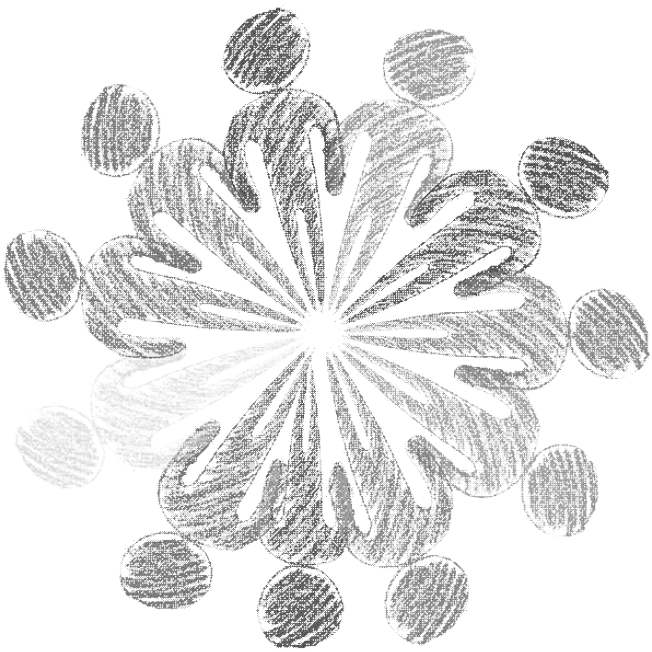
이야기 시리즈 5

열린사회 이야기

신중섭 지음



CFE 자유기업원

훑 어 보 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통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생각과 행동은 이러한 이념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포퍼의 열린사회론을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과 일관적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칼 포퍼Karl Popper는 1902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음악과 책으로 가득 찬 매우 교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격랑의 20세기를 살면서 이념적 적과 동지를 분명히 했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논적을 가진 이론적 싸움꾼이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사색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긴 그는 1994년 9월 14일 런던 교외에서 철학계와 독자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는 인간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지식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추측적인 지식일 뿐이다.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지식은 가설적이거나 추측이다. 둘째,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범한 잘못에서 배움으로써 성장한다. 셋째, 과학의 방법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첫째는 위험을 무릅씀으로써, 감히 잘못을 범하려고 함으로써, 달리 말하면 과감하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범한 실수를 체계적으로 찾아냄으로써 곧 우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비판적 토론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논증은 경험적 테스트로부터의 논증이다.

그는 경험을 통한 배움을 강조한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판과 토론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비판과 토론이 허용된 사회가 '열린사회'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문화다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공간으로 그는 열린사회를 설정하였다. 그는 "우리는 금수禽獸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 길은 열린사회로의 길이라고 말한다. 열린사회만이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폭력이 아닌 이성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포퍼는 열린사회의 범형을 과학자 사회에서 찾는다. 과학의 객관성은 과학자 개인의 무사 공정성의 산물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의 공적인 산물이다. 과학의 객관성은 전문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얻어지는 상호 주관성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과 토론이 자유로운 과학자 사회가 포퍼의 열린사회의 모델이다.

이러한 사회가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되면,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명되며, 엇갈리는 목적들이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는 다원적인 사회이다. 열린사회는 이성과 비판을 신뢰하는 사회이다. 열린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 여기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열린사회는 의견의 대립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열린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회이다. 개개인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이다. 규범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이다. 정부의 정책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성과 경험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비판의 빛 아래서 수정되어야 한다.

정치가들도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그들은 잘못을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가져야 한다. 과학의 성장을 보장해 주고, 객관성의 근거가 되고, 점진적 사회공학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비판을 정치적으로 보장해 주는 사회가 바로 열린사회이다. 따라서 열린사회만이 과학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사회이다.

포퍼는 이러한 열린사회의 특징으로, 첫째, 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그 토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제도는 자유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든다.

포퍼가 제시한 열린사회의 첫번째 특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문제를 위시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대안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반대파의 존립은 열린사회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

칼 아닌 언어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문명의 기초이고, 특히 모든 법 제도와 의회 제도의 기초라고 포퍼는 주장한다. 따라서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날카롭게 모든 정책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열린사회와 반대되는 사회가 닫힌 사회이다. 닫힌 사회는 마술적 금기와 독단이 지배하는 억압된 사회이며, 전체주의적 유기체 사회이다. 닫힌 사회는 전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집단주의를 본질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비판과 그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는 크던 작던 시민을 규제하며 국가만이 판단한다.

전체주의 사회는 국가가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고 한다. 국가가 모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시민들의 생활 전체를 규제하고 간섭한다. 열린사회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면, 닫힌 사회는 현명한 자는 이끌고 통치해야 하며, 무지한 자는 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한다.

플라톤을 위시하여 헤겔, 마르크스, 나치즘 등이 지향하는 유형의 사회가 닫힌 사회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통치자의 지배는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화에 의해 지지된다. 포퍼에 의하면 플라톤은 닫힌 사회의 이론가이고 철인 통치자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방해하려고 한 반동주의자이다.

정치와 과학에서 포퍼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와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지도자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잘못된 질문이다. 온당한 물음은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어 교정할 수 있는가”, “잘못된 지도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가”이다.

통치자의 선한 마음에 기대어 좋은 정치를 기대하게 되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열린사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통찰 가운데 하나이다.

살아있는 조상의 그림자

문서로 기억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역사 연표』의 첫 줄은 기원 전 5천 년에서 시작하고, 『과학 연표』의 첫 줄은 기원 전 240만 년에서 시작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더 오래 되었다. 우주에서 한 점인 지구가 탄생한 것은 45억 년 전이다. 지구 위의 생명체는 약 36억 년 전에 나타났고, 기원전 240만 년에 최초의 인간인 현생 인류가 등장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들짐승처럼 살다가 기원전 1만 년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고조선의 시작은 기원전 7-8세기에 지나지 않지만,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70만 년의 구석기 유물이 공주 석장리에서 발견되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다. 인류의 역사는 길고도 깊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뒤에는 항상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집단생활을 유지해 왔다.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부족 단위로 공동 생산하여 함께 먹으면서,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회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했지만 공동생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씨족을 형성하든, 부족을 형성하든, 나라를 형성하든, 공동생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이었다. 이때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원시 본능은 아직도 우리 안에 강하게 남아, 닫힌 사회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우리를 부추긴다.

원시 본능을 극복하고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경향, 열린사회를 향한 열망이 싹튼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 시대이고, 그것을 꽃피운 것은 20세기 이후다. 자유주의 이념인 열린사회의 기운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은 몇 십 년에 불과하다. 그 동안 생존 전략으로 급격하게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자유주의 이념이 싹트긴 하였지만, 아직 닫힌 사회, 부족 사회로 되돌아가려는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반자유주의적 경향들은 아름다운 언어로 장식되어 원시 본능에 호소한다. 민족중흥, 강한 정부, 평등한 사회, 복지 국가,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덕에 의한 통치, 더불어 잘 살자 등과 같은 이념들은 모두 닫힌 사회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정치 강령으로 열린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이념 뒤에는 역사주의, 전체주의,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이념들은 마술적인 위력에 순종하는 부족 사회나 닫힌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열린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에서 나온 현상들이다.

버날은 두 가지 종種의 인간이 있다고 하였다. 과학 기술의 길을 추구하는 종과 원시적인 자연적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다른 한 종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종은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양식이 사적인 차원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제정이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전개될 수도 있다. 한 나라가 번영을 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정책 결정이 갖는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사람과 닫힌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은 서로 상반되는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으려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포퍼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포퍼는 누구인가

열린사회라는 참신한 정치 이념을 발전시킨 포퍼는 1902년 비엔나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개신교로 개종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종교는 갖지 않았으며, 1994년 영국에서 영면하였다. 기 소르망은 포퍼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포퍼는 아인슈타인을 만나 결정론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지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인슈타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포퍼는 스스로 볼테르, 칸트, 흄의 계몽주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말한다. 계몽주의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는 계몽주의는 “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일생과 궤를 같이한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광기로 얼룩진 전쟁과 살생으로 점철된 음울한 세기였다. 그러나 포퍼는 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이에 도전하는 이념들의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세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지적처럼 '완전한 세계'에 대한 꿈은 전체주의와 폭력으로 귀착되어 결국 철저하게 비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 나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완전한 세상에 대한 꿈은 항상 개인의 양심과 권리를 말살하는 폭력으로 끝맺었다.

1945년에 출간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나치 전체주의가 안고 있는 마력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양심과 비판적 이성을 존중하는 열린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나치의 오스트리아 침공 소식을 듣고 1938년 집필을 시작하여 1943년에 완성한 이 책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응답이었고, 앞으로 전개될 어두운 세계에 대한 일종의 지적 해명이었다. 그의 통찰대로 공산주의는 중대한 이념으로 확산되어 한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공산주의 이념 아래 살았다. 그는 한 결 같이 인간다움과 합리성, 법 앞의 평등과 자유를 목표로 하여 문명이 직면한 어려움의 정체를 밝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자신의 이념의 설득력을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열린사회를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적으로부터 지키려 한 포퍼는,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로 존경해 온 철학자들을 인류의 적으로 분류하여 치밀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위대한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습관을 타파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위대한 인물도 중대한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와 이성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이유로 위대한 사상가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마르크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포퍼는 헤겔을 경멸할 가치도 없고, 절대적 지식에 도달한 것처럼 위장한 수다쟁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다. 그는 마르크스를 전체주의자이고, 결정론자이며, 엉터리 예언자로 규정하였다. 포퍼는 『역사주의의 빈곤』에서 역사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목표이고 그 역사의 법칙이 우리의 정치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역사주의를 경계하였다. 이 책에서 포퍼는 역사의 참된 법칙을 발견하여 예측하려는 시도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예측은 불가능하다.

포퍼는 역사의 필연성과 사회법칙에 대한 열광 속에,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성하려는, 위험하고 작동할 수 없는 제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 청사진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신한 또 하나의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어둡게 보고 어떤 사람은 밝게 본다. 이들의 차이점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세계가 악마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현 체제 아래서 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포퍼는 후자에 속한다. 포퍼와 동시대를 살다간 마르쿠제는 전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현실 인식은 상반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사회다. 이 사회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간 존재에 대해 가장 큰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와 자유의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다. 오늘날 이 억압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이 억압은 지양될 수 있다." (마르쿠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체제에는 불의와 억압, 빈곤과 결핍이 존재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체제는 이 악들과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사회보다 이 사회에 불의와 억압, 빈곤과 결핍이 적다고 믿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도 대단히 완전하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사회 가운데 가장 좋은 사회다. 그리고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 이념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념은 아마도 인간을 완전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희망일 것이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 냈다." (포퍼)

마르쿠제는 현재 서구 사회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자유의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서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포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적 합리주의

합리적 비판을 옹호하는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사유 방식이면서 동시에 삶의 방식이다. 비판적 논의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잘못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비판적 합리주의의 근본정신이다. 포퍼는 비판적 합리주의를 다음과 같이 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내가 잘못이고 네가 옳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함으로써,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두 문장은 평화와 인간성과 관용과 겸손,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려는 노력, 비판적 토론의 가능성에 대한 포퍼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이성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철학자나 지성인은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나의 이론이나 생각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향해 진보할 수 있다. 어려운 말로 자신이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이 잘 비판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나의 입장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포퍼는 합리성을 이성적 비판과 연결시켰다. 이 점에서 그는 합리성을 최종적으로 참인 지식과 연관지운 전통적인 철학자와 구별된다. 지식은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성장한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과학적인 지식도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 추측적인 지식이다.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과학은 진리에 접근한다.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한 이론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자의 목적이다. 과학의 목적은 점점 더 많이 아는 것이다. 지식은 비판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공산주의와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스스로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한다. 절대적 진리는 그것과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 포퍼는 어떤 주장도 최종적인 진리일 수 없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서로 다른 견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 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선택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포퍼는 이러한 사회를 열린사회라 하였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열린사회의 적이다.

나아가 포퍼는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다. 그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미래는 열려 있다. 미래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미래에 놓여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포퍼의 말은 미래의 개방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의 의무는 미래의 불행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며, 예언자로 나서는 대신에 우리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미래는 인간의 의도와 노력에 달려 있다.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열린사회와 닫힌사회의 기원

베르그송은 열린사회라는 용어를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포퍼는 열린사회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 말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개방은 폐쇄라는 말과 대립적이며, 개방과 폐쇄라는 개념은 원래 심리학적 개념이지만, 이를 도덕과 종교에 적용한 철학자는 베르그송이다. 개방은 베르그송에 있어서 수직적 개방임에 비하여 포퍼에 있어서는 수평적 개방이고, 베르그송의 열린사회는 인류를 포용하는 개념임에 반하여 포퍼에 있어서 열린사회는 다른 이념을 가진 사회와 다투는 경쟁적 사회로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다. 포퍼의 열린사회는 세속적인 자유 사회와 동일한 개념이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문화다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공간으로 열린사회를 설정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사라지면서 열린사회의 이념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열린사회의 적들의 이념도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열린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열린사회와 닫힌 사회는 실제로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끌어 낸 개념이다. 포퍼는 원시 부족 사회에서 닫힌사회의 특징을 발견하고, 영국 시민들의 정직, 관용, 정치적 책임에서 열린사회의 특징을 보았다. 따라서 열린사회는 실재하는 사회이면서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이기도 한다. 어떤 사회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어 다른 사회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역사, 전통,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이 열린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이다.

곧 과거와 비교하여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폐쇄적인 방향으로 퇴보하고 있는가이다.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만일 그 사회가 열린사회의 이념들을 잘 펼친다면 그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포퍼는 부족주의에서 인도주의, 곧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전환은 그리스 사회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열린사회의 근본은 소크라테스의 비판정신에 담겨져 있으며, 데모크리토스, 페리클레스의 사상에도 들어 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 스파르타의 통치방식, 플라톤은 닫힌 사회의 정치이념을 지지한다.

포퍼는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이행은 인류가 겪은 가장 심원한 혁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닫힌 사회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여명이 비치기 시작한 곳은 그리스 사회이다. 여기에서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열린사회를 향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타나 닫힌 사회의 정치이념과 경쟁하였음에도, 그러한 경쟁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실제로 열린사회의 이념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이다.

무역과 항해: 열린사회의 원동력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혁명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부족주의의 붕괴, 곧 그리스에서 닫힌 사회의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구 증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닫힌 사회를 흔들어 놓은 것은 상업과, 무역과 항해에 종사했던 새로운 계급의 탄생이었다. 닫힌 사회의 가장 강력한 붕괴 요인은 해상교통과 상업의 발달이다. 무역은 개방과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온다. 항해와 상업은 기원 전 5세기에 발전된 아테네 제국주의의 특징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플라톤은 자립 경제를 옹호하고 무역을 반대하였다. 닫힌 사회에서 노예제도, 신분제도, 계급 통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열린사회가 도래하면 이러한 제도는 모두 붕괴되고 사회적 안정은 사라진다. 닫힌 사회의 지지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으려 한다.

열린사회로 향한 혁명에 가장 강하게 저항한 것은 스파르타였다. 스파르타는 모든 변화를 억제하고 부족주의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보여준다. 포퍼는 스파르타의 정치 원칙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통제된 부족주의의 옹호. 즉 부족의 금기가 갖는 엄격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의 경향을 배척한다. 둘째, 인도주의에 대한 반대. 즉 모든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적, 개인주의적 이념을 배척한다. 셋째, 자급자족. 즉 무역을 하지 않고 자급자족의 경제를 성취한다. 넷째, 반보편주의 또는 지방주의, 즉 자신의 부족과 다른 부족 사이의 차이점을 견지하고, 열등한 종족과 섞이지 않는다. 다섯째, 지배권, 즉 이웃을 지배하고 노예화한다. 여섯째, 그러나 지나치게 큰 국가는 되지 않는다. 특히 보편적인 경향을 도입할 위험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성장해야 한다. 포퍼는 이러한 경향 가운데 여섯 번째만 제외하면 현대 전체주의 경향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모든 정치적 변화는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이데아론자로서 당연한 판단이다. 이데아론에 따르면 모든 변화는 악이며, 정지는 신성하다. 이데아적인 국가의 모방이 국가라면, 변화한다는 것은 완전한 국가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억제되어야 한다. 이데아에서 멀어지는 변화를 억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조상들의 원초적인 국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 안정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며,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전의 부족적 가부장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을 이끄는 자연적 계급 지배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대한 세대'의 열린 정신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전과 그 전쟁 중에 살던 세대를 위대한 세대라고 부른다. 이 세대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페리클레스는 법률 앞에서 평등과 정치적 개인주의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포퍼는 헤로도토스,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도 이 세대의 위대한 인물에 포함시킨다. 이들은 플라톤보다 앞서 살다간 사람들이지만 플라톤의 사상과 대립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어와 관습과 법률에 관한 제도들은 터부의 마술적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라는 원리를 확립하고, 인간 자신들이 그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열린 사회의 이념을 가진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다. 그는 '과학의 정신'의 본질은 바로 '비판'이라고 가르친 사람이다. 포퍼에 의하면 그는 우리에게 이성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독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론과 이성을 불신하지 말아야 하며, 지혜를 우상시하는 마술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쳤다.

데모크리토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열린사회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한 감정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 덕의 기초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작은 우주이다.…… 우리는 최대한 불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선함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나쁜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다.…… 자유인이 노예보다 좋은 것과 같이, 민주정치 아래서 가난한 것은 귀족정치나 군주정치가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번영보다 좋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나라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영혼의 안식처는 전 세계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의 왕 노릇을 하기 보다는 단 하나의 인과법칙을 발견하고 싶다는 그의 말은 진정한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포퍼는 데모크리토스의 이러한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해석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오기 반세기 이전에 행해진 페리클레스의 유명한 추도 연설에 열린사회의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플라톤의 사상과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고 포퍼는 말한다.

시오노 나나미도 『로마인 이야기』에서 자유주의 이념의 압권으로 극찬하고 있는 유명한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흉내 낸 것이 아니다. 남의 이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범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소수의 독점을 배격하고 다수의 참여를 수호하는 정치체제, 그 이름을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이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공적 생활에 봉사함으로써 주어지는 명예도 세인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출신 가문이나 성장과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빈곤 속에서 입신했더라도, 나라에 유익한 능력을 가졌다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길이 막히는 일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이 공사公事에 이바지할 길을 가졌으며, 또 사적인 생활에서도 나날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의심이나 질투가 소용돌이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말할 만큼 완벽하다."

"우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 이웃이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를 간섭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법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정관과 법률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는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결단력으로 시련을 대한다. 우리가 발휘하는 용기는 관습에 얽매이고 법률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갖고 있는 각자의 행동원칙에서 생겨난다."

"우리 국가는 세계에 열려 있다. ……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언제나 위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질박함 속에 미를 사랑하며, 탐닉함이 없이 지知를 존중한다. 우리는 부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 어리석게도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일신의 가난을 인정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깊이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휘된 능력은 공적 사업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해로운 인물이 아니라 소용이 없는 인물이다. 비록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토론을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방해물로 여기지 않고, 현명한 행동을 위한 불가피한 예비단계로 이해한다. …… 우리는 행복은 자유의 열매이며, 자유는 용기의 열매라고 믿으며, 전쟁의 위험에 몸을 도사리지 않는다. …… 요약하면 나는 아테네는 그리스의 학교이며, 모든 개개인의 아테네 사람들은 적절하고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고,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자기를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연설은 아테네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위대한 세대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포퍼는 해석한다. 이 연설은 위대한 평등주의적 개인주의자의 정치 강령을 표현한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개인주의가 이타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타주의와 결합된 개인주의는 서구 문화의 근저를 이루었다. 기독교 정신의 중심원리는 너의 종족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예수의 정신과도 상통한다.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가 이성과 인도주의적 신념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민주주의자의 정치 강령을 표현한 것이다. 민주정치의 세계와 과두정치의 세계 사이의 투쟁에는 어떤 타협도 존재할 수 없듯이 열린사회와 닫힌 사회의 투쟁 사이에도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연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판과 토론의 전통과 합리적 사고를 창안함으로써 열린사회의 이념에 기여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포퍼에 따르면 그는 의사소통의 보편적인 매체로서 인간 이성에 대한 평등주의적 이론, 지적 정직성과 자기비판에 대한 강조, 정의에 관한 평등주의적 이론, 불의를 타인에게 행사하는 것보다 불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원리를 견지하였다.

포퍼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개인들이며, 서로서로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소크라테스에서 왔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와 아테네의 민주주의 제도를 비판했지만 그의 비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비판으로 그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비판가였다는 관점에서 포퍼는 그를 열린사회에 공헌한 사상가로 높이 평가한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만족과 자만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는 개인주의는 부족주의의 해체일 뿐 아니라 개인은 자신이 해방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육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에겐 신적인 불꽃, 곧 이성이 있다.

진리와 친절, 인간다움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인간의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단순한 욕망과 소망의 덩어리 이상으로 만들고, 자족적인 개인으로 만들고, 너는 너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 정직성을 일깨우기 위해 너의 영혼을 보살피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포퍼가 소크라테스에게서 찾아낸 열린사회의 정신이다.

열린사회와 닫힌사회

포퍼는 열린사회의 범형을 과학자 사회에서 찾는다. 과학의 객관성은 과학자 개인의 무사 공정성의 산물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의 공적인 산물이다. 곧 과학의 객관성은 전문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얻어지는 전문가들의 상호 주관성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과 토론이 자유로운 과학자 사회가 포퍼의 열린사회의 모델이다.

관용과 다양성은 열린사회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다양성은 획일성과 반대되며,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자유가 살아 숨 쉴 수 있다. 관용은 다르다는 사실과 틀렸다는 사실을 구별하여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동하여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으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생각,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부정하고 낮게 평가하고 말살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가 물리적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이나 문화를 정복하고 억압하려는 전체주의, 제국주의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제1권의 마지막 장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그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로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최고 통치자인 철인 왕이고 행복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다. 왜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인 왕에 의해 행복해져야 하는가. 여기에 전체주의적인 플라톤 정치사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개인은, 우주이든 국가이던 부족이나 종족이던, 또는 다른 집단이든,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집단주의는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는 부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 당신은 전체를 위해 창조되었지만 전체가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 집단이나 부족에 소속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이타주의를 지지하고 자기 본위나 이기주의를 물리치자는 도덕적 명분은 원시 본능과 일치한다. 플라톤은 전체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본위적이라 주장하고 싶어 한다.

국민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려 했던 플라톤은 모든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완전한 국가의 건립을 정치 강령으로 삼았다. 플라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지배자는 지배하는 데서, 전사는 전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노예는 노예처럼 일하는 데서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나, 어떤 특정 계급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전체의 행복이다.

포퍼는 플라톤의 이러한 정치사상은 “사람들을 부족주의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게 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곧 닫힌 사회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열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한다.

집단주의는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는 문명을 파괴하게 될 위험한 사상이다. 플라톤의 행복론과 정의론은 집단주의적이다. 물론 플라톤의 정치이념은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하였다. 곧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근본적인 자비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의에 이끌려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국민을 행복하게 했는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되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열린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다. 열린사회는 사회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대의명분을 위해서 희생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전체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수난을 당한 이념이다.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 또는 자기 본위와 동일시하여 나쁜 것으로 선전하였다.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의 반대 개념이지, 이기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이기주의의 반대 개념은 이타주의다. 집단적 이기주의도 가능하고 이타적 개인주의도 존재한다.

물론 개인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타주의도 있을 수 있다. 계급적 이기주의와 같은 집단적 이기주의나 단체적 이기주의는 대단히 일반적이다. 이는 집단주의 자체가 이기주의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톤주의자들이 '이타적 개인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집단주의의 반대어는 이기주의뿐이다. 그는 모든 이타주의를 집단주의와 동일시하고, 모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동일시한다.

플라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동일시하는 이유는 개인주의를 공격하는 데뿐만 아니라, 집단주의를 방어하는 데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를 방어할 때는 우리의 이타주의와 인도주의적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개인주의를 공격할 때는 모든 개인주의자들은 그들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본위적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은 플라톤이 인간 개인으로서의 권리, 즉 개인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 공격은 전혀 다른 목표인 이기주의에만 해당한다. 플라톤이 개인주의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해방은 부족주의의 붕괴를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박한 일원론과 비판적 이원론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부족사회가 존재하였지만, 이 부족사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포퍼는 그 특징으로 부족사회의 관습에 대한 마술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 그 관습의 엄격성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마술적이라 함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습에 대한 마술적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규칙성과 자연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회 환경의 특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회 환경 가운데 하나인 금기와 법률은 일출과 일몰, 계절의 순환과 같은 자연의 규칙성과 같이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원시부족 사회나 닫힌 사회를 지배한다. 부족 사회나 닫힌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을 구별하지 못한다. 태양과 달의 운동, 행성의 운동, 사계절의 순환을 설명하는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규칙, 예를 들면 모세 십계명, 국회의원의 선거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규칙이 규범법칙이다. 닫힌 사회에서는 양자가 구별되지 않는다.

자연법칙은 영원불변하며 예외가 없다. 어느 누구도 자연법칙을 바꿀 수 없다. 누가 자연법칙이 깨어졌다고 말한다면, 깨어진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잘못된 가설이다. 반면에 규범법칙은 그것이 법적인 규정이든 도덕적 규율이든 인간에 의해 강제로 집행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다. 어떤 규범법칙이 준수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통제와 행위와 결심 때문이다.

닫힌 사회는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에 대해 소박한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비판적 이원론을 취하는 열린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박한 일원론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소박한 자연주의는 자연적 규칙이든 관습적 규칙이든 규칙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포퍼는 이 단계는 실현된 적이 없고, 추상적인 가능성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소박한 관습주의는 자연적 규칙성과 규범적 규칙성을 신이나 악마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계절의 순환이나 태양, 달, 행성의 운동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자가 선포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연법칙까지도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술적인 도움에 힘입어 인간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닫힌 사회에서는 터부가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해진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마술적인 부족 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닫힌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가 시민생활을 완전히 규제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이 옳은가 혹은 잘못된 것인가를 결정한다. 개인의 행동은 집단적 부족 전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책임질 일이 없다. 책임을 수반하는 결단의 영역이 개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열린사회에서 개인은 결단을 통해 금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법률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닫힌 사회와 열린사회의 차이는 규범문제에 대해 합리적 반성이 허용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마술적이거나 부족적이거나 집단적인 사회가 닫힌 사회고, 개인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가 열린사회다.

그러나 마술적 부족주의는 금기가 여러 부족 사이에 서로 다르다는 것, 금기는 인간에 의해 생긴 것이며 강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 법률을 만든 것은 인간이며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족주의는 유지되기 힘들다.

비판적 이원론의 단계에 이르면, 인간이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으며, 변경할 수도 있는 규범법칙과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자연규칙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된다. 비판적 이원론은 단순히 규범은 인간에 의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것을 지키거나 수정하려는 결단이나 협약에 의해 제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규범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규범에 대해 우리가 불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 규범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다. 인간이 규범을 판단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 윤리적 결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 이외에 누구에게도, 신이나 자연, 사회, 역사에 책임이 전가될 수 없다.

규범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규범적 체계가 다른 규범적 체계와 똑같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포퍼는 규범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는 상대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어떤 규범적 체계가 개선될 수 있고 어떤 법칙은 다른 법칙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현재의 규범 법칙이나 사회제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른 규범과 비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퍼는 수학적 계산법이나 교향곡, 연극 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것들이 모두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자연주의와 반자연주의

나아가 포퍼는 결단은 사실에 관계하기는 하나 결코 사실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쇠사슬에 묶여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결단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으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결단을 구분하지 않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사실과 결단을 구별하지 않는 자연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은 곧 역사주의와 연결된다. 대상의 진정한 본성을 고찰하는 것이 과학 일반의 과업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와 국가의 본성을 고찰하는 것은 사회과학 또는 정치과학의 과제다. 플라톤에 의하면 사물의 본성은 그것의 기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모든 과학의 목적은 사물의 기원에 대한 탐구이다.

이 원칙이 사회과학에 적용될 때, 사회나 국가의 기원이 고찰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난다. 역사는 그것 자체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방법으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주의적 방법론이다. 현명한 자는 이끌고 지배할 것이며, 무지한 자는 따르는 것이라는 주장은 자연에 따르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 본성에 의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통치자, 공직자, 생산자는 주어진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플라톤의 정치 강령은 자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포퍼는 자연주의에 기초한 그의 정치 강령이 전체주의적임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엄격한 계급 구분: 목자와 감시자로 이루어져 있는 지배계급은 인간, 가축과 엄격히 구별된다. 둘째, 국가의 운명과 지배계급 운명의 동일시: 계급 사이의 단합에 대한 독점적 관심, 혹 이러한 단합에 도움이 되는 이 계급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냉엄한 규칙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이익에 대한 엄한 감독과 집단화, 이러한 기본적 요소들로부터 다른 요소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셋째, 지배계급은 군사적 덕과 군사 훈련과 같은 일에서, 무기 휴대의 권리나 어떤 종류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독점권을 갖는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경제활동에의 어떤 참여, 특히 돈을 버는 일에서 제외된다. 넷째, 지배계급의 모든 지적 행위에 대한 검열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틀에 박아 통일하기 위한 계속적인 선전이 있어야 한다. 교육, 입법, 그리고 종교상의 모든 혁신은 막거나 억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자기 충족적이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자들은 무역업자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무역업자가 되거나 할 것이다. 전자는 그들의 권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후자는 국가의 통일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열린사회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반자연주의적이며, 개인의 이익과 독립된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다.

경쟁 없는 유기체 사회와 경쟁 사회

포퍼에 따르면 닫힌 사회는 불변의 터부와 마술이 지배하는 원시적인 부족 사회이다. 전성기에 있는 닫힌 사회는 유기체에 비유된다. 국가 유기체설은 닫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닫힌 사회는 반半생물적인 유대에 의해 함께 묶여 반유기체적인 단위로 존재하는 한 집단이나 부족과 비슷하다.

함께 살며, 함께 일하고 함께 위험에 대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족과 유사하다. 닫힌 사회는 노동의 분업이나 상

품의 교환과 같은 추상적인 사회관계에 의해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가 아니다. 만져보고 냄새 맡고 바라보고 하는 구체적인 육체적 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회이다.

열린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고 계급투쟁도 일어날 수 있다. 유기체 속에서는 경쟁이나 계급투쟁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리가 머리가 되기 위해, 손이 발이 되거나 귀가 눈이 되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유기체에서는 열린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구성원들 사이의 지위 다툼, 곧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열린사회의 정의

포퍼는 열린사회의 이념으로 개인주의, 정의, 평등주의, 이성에 대한 신념, 자유에 대한 사랑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개념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개념이다.

포퍼는 인도주의적 인생관에 따라 정의를, (1) 시민의 의무에 대한 균등한 분배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유의 제한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법 앞에서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한다. (3) 그 법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 계급에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4) 법정의 공정성 (5) 국가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무뿐만 아니라)의 균등한 분배라고 설명하였다.

균등한 분배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 정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와도 구별된다. 플라톤은 '정의로운'이라는 말은 '최선의 국가에 이익이 되는'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엄격한 계급구분과 지배계급의 유지에 의해 모든 변화를 억제한다. 인간은 자연적 본성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그는 지배자는 지배하고, 노동자는 노동하고, 노예가 노예일 수 있다면 국가는 정의롭다고 말한다.

포퍼가 개인에 대해 정의를 말할 때는 '등을 의미하지만, 플라톤의 정의 개념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계급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국가 전체의 성질로 여긴다. 만약 국가가 건강하고, 강하고, 통합되어 안정되어 있다면, 국가는 정의롭다.

추상적 사회와 원시본능

열린사회가 된다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 본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열린사회는 유기체적 특성이 없으므로 '추상적 사회'가 된다. 열린사회는 구체적인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익명의 관계로 들어간다. '추상적 사회'에서는 인간이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가 복잡해지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인간이 실제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보로 의사 교환을 하고, 밀폐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고립된 개인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는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녀 사이의 접촉 없이도 인공 수태에 의해 번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사회를 포퍼는 완전히 추상적인 사회 또는 비인격적인 사회라 부른다.

부족 사회가 아니라 추상적 사회가 됨으로써 출생이라는 우연에 의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새로운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함께 개인주의가 발생한다. 생물학적 결속이나 육체적 결속이 아니라 정신적 결속이 나타난다. 현대의 열린사회가 교환이나 협동과 같은 추상적인 관계에 의해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추상적 사회가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포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여러 면에서 완전히 추상적인 사회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친밀한 인간적인 접촉을 갖지 않고 익명과 고립 속에서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사회가 추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물학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추상적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사회적 요구를 가지고 산다.

물론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회나 거의 합리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추상적인 사회나 거의 추상적인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실제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여러 종류의 인간들과 실제적인 접촉을 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가능한 충족시키려고 한다.

경계해야 할 회귀본능

포퍼는 닫힌 사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원시 본능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플라톤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것이었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은 뛰어난 것이었지만, 그는 그가 권고했던 치료가 그가 없애기 위해 싸웠던 악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치적 변화를 저지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닫힌 사회의 순수함과 미로 결코 되돌아갈 수는 없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꿈은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일단 우리가 이성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비판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요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과 더불어 지식의 진보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부족적 마술에 맹신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지식이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부족주의의 영웅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교재판에, 비밀경찰에, 낭만주의적인 집단 폭력 행위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이성과 진리에 대한 억압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파괴로 끝내야만 한다. 조화로운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만일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온 길 전체를 되돌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짐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포퍼는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꿈을 꾸지 말고, 다른 사람에 기대어 행복을 찾고자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임무에서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인간으로 남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우리가 계획해야만 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닫힌 사회에서 나오면 긴장과 불안이 생긴다. 닫힌 사회가 무너지고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사회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하고, 감정적 사회적 욕구를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긴장과 불안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 긴장의 대가로 지식과 합리성이 증가하고, 협동과 상호부조가 확대됨으로써 생존의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열린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참여와 책임

우리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힘 없는 보통사람, 무지랭이라고 한다. 대단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면 이러한 태도는 사회에 대해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힘 있는 사람의 잘못이며, 그들만 처벌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국민 모두는 면죄부를 받는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국민은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국민들은 역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앉아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현상의 책임을 힘 있는 사람이나, 역사의 심판과 같은 초인간적인 권위에 완전히 맡겨 버린다.

이는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신민이 아니다. 정치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혈통적으로 선택 받은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 군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권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왕의 부름을 받을 수 없어, 마음으로만 목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민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정부나 정치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체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를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민주시민은 자유와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매기, 『칼 포퍼』, 이명현 역, 문학과 지성사, 1982.

신일철 편, 『포퍼』,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서광사, 1992.

이한구, 『역사주의와 역사철학』, 문학과 지성사, 1986.

포퍼, 『과학적 발견의 논리』, 박우석 역, 고려원, 1994.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이석윤 역, 지학사, 1975.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권, 2권』, 이명현.이한구 역, 민음사, 1982.

홍윤기 편역, 『혁명이냐 개혁이냐』, 사계절, 1982.

Ackermann, R.J., The Philosophy of Karl Poppe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6.

Burke T.E., The Philosophy of Popp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Popper K.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63.

Popper K.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1, 2, Routledge, London. Press, 1945.

Popper K.R., Unended Quest, Fontana Paperbacks Glasgow, 1976,

Popper K.R., In Search of a Better World: Lectures and Essays from Thirty Years, Routledge, London, 1992.

열린사회 이야기

1997년 12월 26일 1판 1쇄 발행
2019년 9월 24일 1판 2쇄 발행

저자_신중섭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

자유기업원